

세계의 형제자매에게

약 2 만명 가까운 희생자가 생긴 동일본대지진 재해로부터 3 월 11 일로 1 년에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진발생 당초부터, 여러분이 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진실된 기도와 귀중한 헌금을 통해서, 저희들은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에, 지진 재해 후 1 년을 기념하여, 현지지원 위원회의 스즈키 마키토 목사가 기도를 썼습니다.

스즈키 마키토 목사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사고에 의한 방사능피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후쿠시마현 고리야마의 침례교회의 목사입니다. 스즈키 목사는 현지지원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와테나 미야기등 동북전체의 지원 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그의 교회가 경험해 온 아픔과 슬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는 하나님으로의 신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번 3 월 11 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도, 이 기도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도 피해 속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신앙과 희망을 나타내 갈 수 있도록 아무쪼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수난절을 맞이하고 계시는 여러분 위에, 주님의 동행과 풍성한 축복을 기도합니다.

일본침례연맹  
사무이사 가토 마코토

---

## 2012 년 3 월 11 일 동일본대지진 재해로부터 1 년을 즈음해서의 기도

일본 침례연맹 재해대책본부 현지지원 위원회  
스즈키 마키토  
(한국어 번역: 이 해훈)

주여.

그 날 밤, 아직 큰 여진이 계속되고, 해일 경보도 수습되지 않는 와중에, 모든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방영되는 해일피해상황을 직접 보면서, 망연자실 하고 있었습니다.

2011 년 3 월 11 일 14 시 46 분 18 초, 미야기현 오시카반도의 동남동앞바다 130km 의 해저를 진원으로서 발생한 동북대지진은, 미증유의 피해를 냈습니다. 사망자 1 만 5843 명, 행방불명자 3469 명, 일본의 관측 역사상 최대규모의 지진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격변시켜버렸습니다. 지진피해, 해일피해, 그것에 의해 발생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원자력 발전소사고의 피해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가족을 빼앗고, 친구를 빼앗고, 생활을 빼앗고, 일을 빼앗고, 거처를 빼앗고,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그 아픔 안에 있습니다. 1 년이 지난 지금도, 저희들은, 그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피난소를 방문한 분이 있었습니다. 지진 재해 직후, 피난소는 어수선하여, 자원봉사 수용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할 수 없는가라고 생각하고, 경청 자원봉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만, 골판지로 칸막이 된 침상에 누워 있는 분의 곁에 가만히 앉아서, 그분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눈앞에는 처참한 상황이 펼쳐지고, 아픈 사람, 슬퍼하고 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접해야 좋은 것인가, 뭐라고 해서 말을 걸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단 한마디 말을 걸 말마저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거리감, 무거운 공기가 흐르고, 1일 2-3 시간 앉아 있는 것 만이라도 정말로 녹초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지원 활동의 일을 생각할 때, 언제나 원점으로 여겨지는 광경으로 기억됩니다.

해일로 배우자를 여의신 분을 만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매일, 사체안치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이 안치소를 방문하면서, 몇주일 경과하여, 드디어 돌아가신 배우자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때, 생각한 것은, 「이제 여기에 오지 않아도 된다.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얼마나 괴로운 마음이었던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화장터에서 신원불명의 여러분의 장례에 출석하고 온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조문되어 가는 여러분의 장례에 입회하면서, 이 한사람 한사람에게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지인이 있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해일피해의 기와데미철거의 자원봉사에게 참가한 분이 있었습니다. 깨진기와를 주우면서, 이것들 하나하나가 쓰레기나 기왓장이 아닌, 그 하나하나에 살아온 증거와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눈물이 넘쳤다고 합니다.

원전사고로 피난한 여러분들을 만나신 분이 있었습니다. 피난한 여러분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면, 피난소를 5 번, 6 번, 7 번이나 이동된 분들 이셨습니다. 원전사고의 뒤, 정부가 방침을 손쉬움 바꾸고, 피난 범위를 바꾸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침을 바꿀때 마다, 이제겨우 익숙해진 피난소로부터 또 도망나가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피난소에 가는 것은 결정된 여정이 있을 리도 없습니다. 인편에 물어 물어, 피난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피난처를 찾아서 들어가려 해도, 거절당해버리는 일도 자주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추운 날 피난중에 손자가 몸상태가 좋지 않아 열이 났을 때 이다. 진찰해줄 병원을 찾지못해, 정말로 난처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라에 농락되고, 여기저기서 상처를 입어 가면서, 피난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집에 돌아가고 싶다」 단지 그 것만을 기원하지만, 그 소원마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상황에, 안타까움이나, 초조함을 느끼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주변에는, 지금도 많은 분의 고민과, 잊혀지지 않는 아픔과 슬픔의 목소리와 신음, 외침이 있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뿐입니다. 한편으로, 세월이 지나 조금씩 지진 재해의 사건이 과거의 일인 것 같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흥은 진행되지

않고, 곤란 속에서 보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사고의 괴로움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위험 구역에서 가설 주택에 사시는 분, 방사능피해를 두려워하여, 현외로 피난하신 분, 불안해하면서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현내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원전사고의 수습을 위해서 결사적으로 작업에 임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원전사고에 관한 여러가지 잘못된 정보에 계속해서 농락되고 있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원전사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도, 그 고장의 일거리가 없어, 다른 현으로 이사를 간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지역의 가설 주택에서는, 이제 까지의 커뮤니티가 상실되고, 고독이나 불안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또, 지진 재해 직후의, 누구라도 어떻게 할 수도 없었던 상황을 상기하고, 「자신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자책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또한, 가설 주택의 생활로부터 드디어 집을 짓기로 마음먹으신 분도 계십니다만, 집을 짓는 분, 짓지못하는 분의 차이가 나오기 시작하고,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함께 사는 것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해주소서. 들어야 할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정확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이 지진 재해를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은, 크게 흔들려,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우리 주가 사랑의 주이시며, 진실한 분이시며, 주가 하시는 것은 최선인 것을 배워 왔을 터인데도, 때로 주를 몰라, 「하나님 왜?」라고 묻고 있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때야말로, 한마음으로 나아 가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인데도, 아무리 해도 하나가 될 수 없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아픔을 안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때로 그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없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번의 원전사고를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더이상 이런 경험은 두번 다시 하고 싶지 않아」 「해서는 안된다」라고 알고 있을 터인데도, 아직도 같은 과오를 되풀이 할 지 모르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진 재해의 현실에 직면하여, 지금까지 정말 자신들의 신앙의 없음, 사랑의 없음, 인내의 없음, 헤매기 쉬움, 죄의 깊이를 알수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저희들과 지금도 함께 계시어, 저희들을 버리지 않고 동행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에게 기독 교회로서의 사명을 주고, 이 땅에 서게 해 주셨습니다.

주여. 부디 저희들에 앞서 걸어 주십시오. 지금도 깊은 슬픔과 아픔속에 있는 이 땅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안의 위로의 업이 일으켜지기를. 주의 진실이 드러내지기를. 저희들 한사람 한사람이, 이 땅에 있는 아픔을 기억하고, 슬픔을 같이 하며, 살 수 있기를. 이 모두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주님 손에는, 지금도, 십자가 위에서, 못박힌 상처가 있습니다. 저희들에 앞서, 주님은 모든 아픔을 이미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 뿐, 희망을 안고, 나아갈수 있기를.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